

“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때 “메리”는 ”기쁘고, 행복한“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뜻의 인사가 된다. 거기에 24, 25, 영원을 불린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24는 매일, 평상시이다. 매일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살라는 의미이다. 25는 위기, 절망의 시간이다. 그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시기 때문이다. 왜 영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계8:9-12)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12월 25일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분이 꼭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관 없다. 그 날을 찾아서 그 날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4, 25, 영원으로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가 오신 세가지 이유 때문이고, 천사들은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라고 했다(10절)

1. 그 분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11절).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1)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운명처럼 빠져 나갈 수 없는 세가지 저주이다.

원죄의 저주(롬5:12), 사단의 저주(요8:44, 행10:38), 영원한 저주(히9:27)이다.

첫 인생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롬3:10).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계속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된 것이다. 그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고(대물림), 그 자신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 저주에 빠져야 하는 것이다.

2) 이 세가지 저주를 세가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해결한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① 제사장의 권세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롬8:1-2, 골1:13-14).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롬3:24), 영원히 하나님 축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

② 왕의 권세로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창3:15),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요일3:8)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상처를 건드리면서 공격을 해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승리할 자가 된 것이다.

③ 선지자의 권세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것이다(요14:6, 계3:8)

우리의 미래, 후대,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마1:22-23, 요14:16-18)

3) 이 축복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엡2:8-9)

① 그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살면 된다.

24, 25, 영원히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예배이다(시50:23)

② 거기서 겸손도 나오고(고전1:30-31),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 돕고, 살리고, 헌신하며 살 수 있다.

자유한 자나 스스로 중노릇하며 살 수 있고(섬기는 삶),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③ 사단은 우리를 또 공격하여 여러 가지 문제, 실패, 환난까지 줄 수 있다. 5가지 확신가지고 가면 된다.

구원의 확신(요일5:11-12), 기도 응답의 확신(요14:14), 사죄의 확신(요일1:9), 승리의 확신(고전10:19),

인도의 확신(잠언3:4-5)이다. 이 5가지가 기초로 해서 7대 이정표가 나오는 것이다.

2. 구원받은 내 인생 속에 그 분이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11절 하).

그 분이 우리 인생이 주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적어도 세가지 뜻이 있다.

1)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다(주권). 그 분은 창조주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분께로 나온다는 것이다(롬11:36)

이것을 믿을 때 용기도 나오고, 헌신도 할 수 있다. 온 세상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다(계3:7).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현금도 하고, 헌신도 하니 그것은 더 큰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2) 주인 되신 그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부모도, 나 자신도,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상처와 한계 투성이인 인생이다. 악한 영은 계속 악한 일을 만든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다(요2장의 혼인 잔치의 비빌).

내 인생도, 자녀도, 사업도, 목회도, 하나님이 책임 지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3)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이 약속하시고, 그 분이 준비하시고, 그 분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언약의 여정).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시대 남은 자로 사는 것이다(롬11:5). 그들을 램네프라고 한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고전2:10-12). 그들을 순례자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사는 것이다(행1:8). 그들을 전도자라고 한다.

3. 그 분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다. 앞의 두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결론의 축복이다.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했다(14절)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영광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① 땅에서는 고통과 전쟁과 어둠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가 된 것이다(사60:1-2)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이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 그때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②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기도로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누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7가지 절대 능력, 기도의 망대이다(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것이 능력이다. 그때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무너지는 3시대를 살릴 수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다. 실제로 237, 오천 종족을 살릴 오력이다.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다. 세가지 뜰(다민족, 램네프, 치유 사역)을 만드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이다).

2) 이때 땅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내 안에 평화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롬14:17)

②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엡2:14)

③ 온 세상이 평화하는 날이 온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계8:9-10)

결론- 하나님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사람과 세상과 시대를 살려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세가지를 붙잡고 24, 25,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기를 축복한다.